

Coca-Cola



2014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Coca-Cola

share
a **Coke**

love
the **Earth**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코카-콜라가 되겠습니다”

2014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2014년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지난 1년간 코카-콜라 시스템이 추진해 온 환경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환경경영 활동 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 등의 정보를 고객과 지역사회, NGO, 정부기관 등의 이해 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기업 시민으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환경부의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개정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카-콜라 시스템의 각 공장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해 온 활동 현황과 성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데이터는 추이 비교를 위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contact us

본 보고서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다음 보고서 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카-콜라(유)

홍보부 구남주 이사

tel. 02-3271-3072

e-mail. nkoo@coca-cola.com

코카-콜라 음료(주), 해태음료(주), (주)한국음료

HES팀 김종석 파트장

tel. 031-8045-1534

e-mail. jongseok.kim@ccbkc.co.kr

본 환경보고서는 FSC인증 친환경 용지에 공기를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contents

- 02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 목차
- 04 CEO메시지

think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철학

- 08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경영 시스템 /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 정책 선언문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경영 관리체계
- 12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및 현황 / History

act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활동 개요

- 18 코카-콜라 환경안전보건방침 / 녹색경영 목표
- 20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사고 대응체계
- 22 환경경영 심사 / 환경성과 평가

live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실천 내용

- 수자원 보호 활동**
- 26 우수 관리 / 수질오염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 / 폐기물 관리
- 온실가스 감축 활동**
- 30 온실가스 관리체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 온실가스 배출량 / 탄소성적표지제도 / 녹색구매
- 스페셜 인터뷰**
- 35 윤승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share 코카-콜라의 환경 커뮤니케이션

- 44 Earth Hour(지구촌 전등 끄기) /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 / 코카-콜라 그린 리더 빗물학교
- 46 지역환경개선 활동 / 용어사전

**“40년을 이어온 코카-콜라 사랑,
지역사회와의 행복한 상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 코카-콜라(유)가 국내에 설립되어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당사는 그 동안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음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음료 제조와 관련된 선진기법들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음료 산업 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야 코카-콜라도 성장할 수 있다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코카-콜라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 받는 음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8회째 발행되는 ‘2014 코카-콜라 환경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중에서도 환경 분야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카-콜라사의 비즈니스 및 기업 활동 전 과정이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특히 코카-콜라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 물 보호, 에너지 기후 보호, 친환경 용기 개발 및 재활용 분야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 200여개 국 이상에서 지난 128년 동안 소비자들의 갈증해소와 상쾌함을 제공해온 최대 음료회사인 코카-콜라에게 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카-콜라사는 2020년까지 음료 생산을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양의 물을 100%

자연으로 환원하는 ‘물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음료의 약 52% 가량을 각지에서 진행되는 468개 지역사회 물프로젝트

를 통해 자연으로 환원한 바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빗물 재활용 및 관계농업에서부터 안전한 식수 및 위생 문제 해결 등 각 지역 사회의 현지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 세계적으로 음료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2004년 이후 5백만 톤 절감했으며, 30% 가량 식물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탄소배출의 감소를 유도하는 친환경 PET용기 ‘플랜트 보틀’을 전 세계적으로 150억병 이상 유통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환경재단과 4년째 진행하고 있는 국내 주요 람사르 등록 습지 체험 프로그램인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 및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코카-콜라 그린 리더 빗물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환경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환경보고서에는 ‘물 사용’, ‘친환경 용기’, ‘에너지 및 기후 보호’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코카-콜라사의 목표를 향한 우리의 노력, 결과와 함께 소비자들의 행복한 상쾌함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코카-콜라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카-콜라사는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행복한 상생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녹색성장으로
‘1등 음료회사’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카-콜라음료(주) 대표이사 정승화입니다.

우리 회사를 성원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들께 지난 한 해 간의 환경경영 성과를 담은 2014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코카-콜라는 지난해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품 품질 강화와 생산성 개선 등의 노력에 힘입어 매출 1조원 돌파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두 코카-콜라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사는 이 같은 관심과 성원이 ‘1등 음료회사’라는 비전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와 불안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당사 역시 환경안전관리 측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환경안전진단을 강화하고 환경안전 사고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과 같은 신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경영을 꾸준히 추진,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당사는 지난 2009년 환경부가 추진하는 탄소배출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 사업장 및 각 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관리하는 등 기후변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이 같은 대응을 더욱 가속화해 해태음료의 천안·평창·철원 사업장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속 추진해왔던 환경보호 및 환경 커뮤니케이션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당사는 현재 전 세계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Earth Hour(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을 비롯해, 국제연합정화활동(IC,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1사 1하천’ 운동,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음료업계 최초로 발간돼, 올해로 8년째를 맞는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당사의 환경 및 저탄소경영을 널리 알림으로써 환경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매체이자, 이해당사자들간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매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보고서 역시 정부기관, 학계, NGO를 대표하는 환경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수록, 당사의 환경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코카-콜라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1등 음료회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상생을 추구하며, 환경안전 측면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코카-콜라(유)
대표이사 이창엽

Paul C. Yi



코카-콜라 음료(주)
대표이사 정승화

정승화



we always
think
about the earth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경영 시스템 3대 목표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 환경 이슈인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성적표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시스템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코카-콜라사의 지속가
능경영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음료의 원액 제조부터 최종 제품 생
산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협의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의 가이드라인
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과 환
경 이해 당사자의 요구 사항, 그리고 코카-콜라 자체의 환경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
기 위해 환경 안전에 대한 KORE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
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경영 시스템의 3대 목표



물 관리

제품 제조에서 사용한 물과 같은 양의 물을 지역
사회와 자연에 안전하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reduce / 물 사용량 감소

-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물 사용 효율 25% 향상
- 2020년까지 물 사용지수 1.70 달성

recycle / 물 재활용

- 수중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엄격한 폐수 처리 기준 준수

replenish / 물 재충전

- 2020년까지 음료 완제품 생산에 사용한
물과 동일한 양을 환원하는 물 중립 달성

에너지 관리와 기후 보호

에너지 효율과 기후 보호에 있어,
음료 산업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reduce / 에너지 사용량 감소

- 2015년까지 2004년 기준으로
선진국Annex I 에서의 탄소 배출량 5% 감축

refrigeration / 냉장 판매장비 개선

- 2015년 기준으로 모든 신규 냉장장치를
HFC-free로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refuel / 대체 연료 개발

- 배송차량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동선 최적화로
연료 사용량 감축
- 포장재 경량화 작업으로 배송 연료 사용 절감

지속가능 포장

포장재를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reduce / 포장재 사용량 감소

- 2008년 대비 리터당 포장재 효율 7% 향상

recover / 포장재 회수

- 2015년까지 매해 판매 제품의 50%까지
재활용·재사용 달성

reuse / 포장재 재사용

- 2015년까지 전체 PET사용의 25%를
재활용·재사용된 소재로 활용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The Coca-Cola Company's Environment Policy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 정책 선언문

전 세계 코카-콜라사TCCC와 보틀링 파트너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환경성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는 코카-콜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문화의
일부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코카-콜라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TCCC와 보틀링 파트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전하는 한편,
환경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는 임직원들을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환경과 관련된 해당 법규 및 회사의 요구 조건들을 준수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Box Tip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 정책 세부사항은?

경영 시스템

환경 정책과 표준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각 조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제공을 통해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법규 준수

환경 관리와 관련된 코카-콜라의
요구조건들(코카-콜라 사업 영역에 적용되는
모든 내부 요구 조건) 혹은 해당 법규의

요구조건들(모든 해당 법규, 규정 및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중 보다 강한 법규를
적용하되 그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임직원의 참여 및 교육

각 조직 임직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명백하게 정의된 역할과 책임, 교육훈련,
의사소통시스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험성 평가

환경과 관련된 위험성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도출합니다.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조건과
해당 법적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하고 주기적인 간격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위기 관리 및 해결(IMCR)

해당 법규 및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조건에
일치하지 않거나 상표와 브랜드 이미지, 회사 자산,
임직원, 계약자, 고객 및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환경 사고를 관리합니다.

이해 관계자의 참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 NGO 등 다양한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합니다.



“코카-콜라는 4단계에 걸친 철저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Global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관리체계

1단계 공급업체

음료 원료
설탕, 커피 등 음료의 주요 원료를 전 세계에서 구매합니다.

물
연간 약 3,000억 리터의 물이 제품 생산에 사용됩니다.



포장재
병, 캔, 트레이 등 제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포장을 위해 포장재를 구매합니다.



보틀링 파트너
독립 보틀링 혹은 코카-콜라 소유 병입 공장들은 완제품 음료의 친환경적 제조 및 포장·배송을 담당합니다.



코카-콜라
음료의 원액과 원재료를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하며 이에 부합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설계합니다.

2단계 코카-콜라 시스템

제품 창고
소매업자를 위해 제품을 저장하고 배송합니다.



고객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 마트, 식당 등에서 코카-콜라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됩니다.



자판기와 쿨러
소비자가 편리하게 음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1,000만대 이상의 자판기와 쿨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소비자
코카-콜라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19억 잔 이상 판매됩니다.



3단계 제품 판매

지속 가능한 포장
음료 용기의 재활용과 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 포장재가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쓰일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 합니다.



에너지 기후 보호
제품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면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물 자원 관리
제품 제조에 사용한 물의 양과 동등한 양을 지역 사회와 자연에 안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4단계 환경 관리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차별화 된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 전략을 실현합니다”

Coca-Cola Korea System Profile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는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관리, 프로모션을 책임지는 코카-콜라사와 완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 고객지원 등 업무를 책임지는 현지의 보틀링 회사, 이렇게 양사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보틀러Bottler'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틀러들은 공장과 운송수단 등 현지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투자를 담당하며,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 믹스와 유통 전략을 구사합니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은 한국 코카-콜라(유)Coca-Cola Korea Company와 코카-콜라 음료(주)Coca-Cola Beverage Company라는 2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 시스템은 코카-콜라 이외에도 한타, 스프라이트 등의 탄산음료와 스포츠 음료 파워에이드, 미닛메이드 주스, 휘오 철원 순수, 조지아 커피, 글라스 비타민워터 등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음료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한국 음료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양하고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화 된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매출 현황

코카-콜라 음료(주)

(단위 : 백만원)

1,003,959

해태음료(주)

260,401

※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임직원 현황

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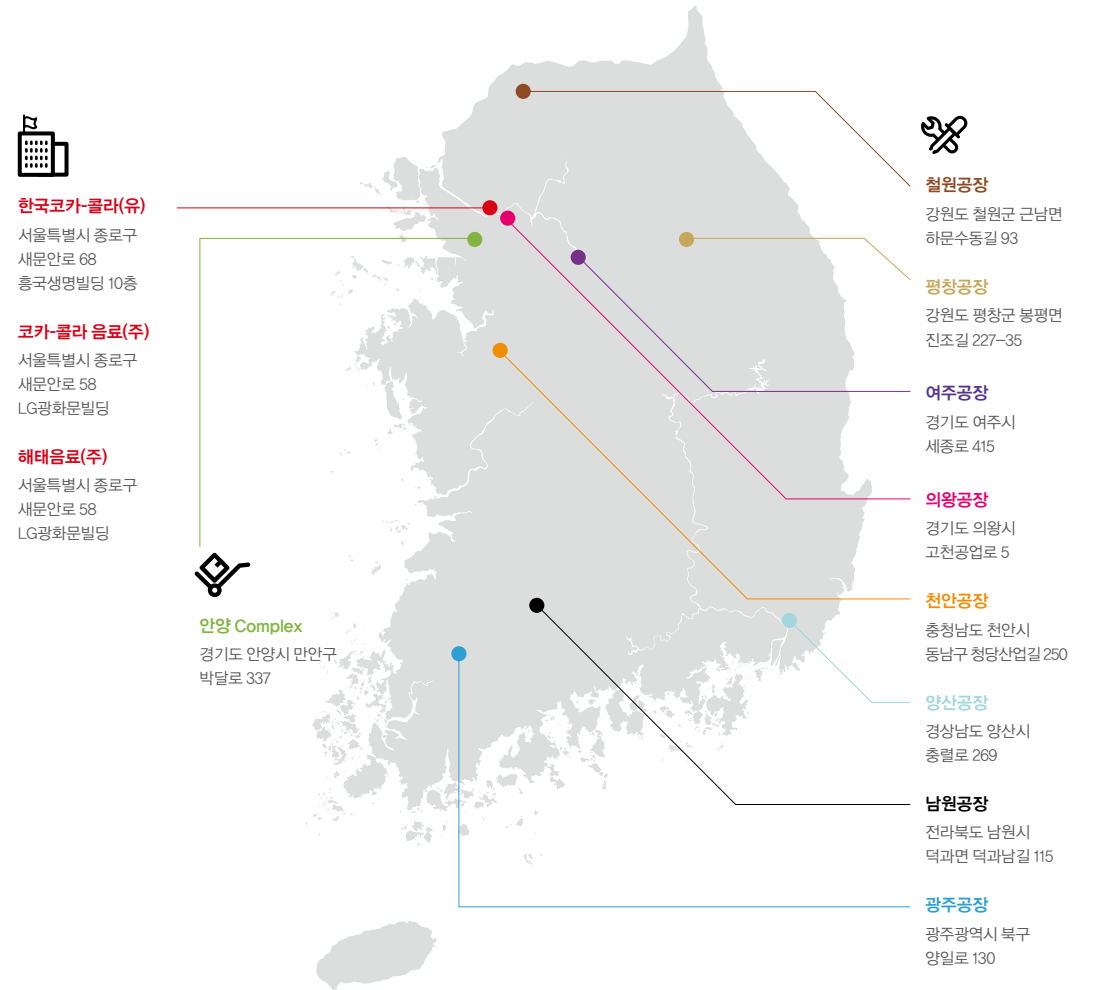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관리사무직	생산물류직	영업판매직	총계
코카-콜라 음료(주)	608	511	1,342	2,461
해태음료(주)	67	317	518	902

※ 2013년 12월 말 기준

국내 사업장 현황

코카-콜라는 최고의 제품으로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지역에 8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유통망을 구축해 고객에게 신속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에 처음 소개된 코카-콜라는,
지난 60여 년간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변함 없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Product Portfolio & History

생산 제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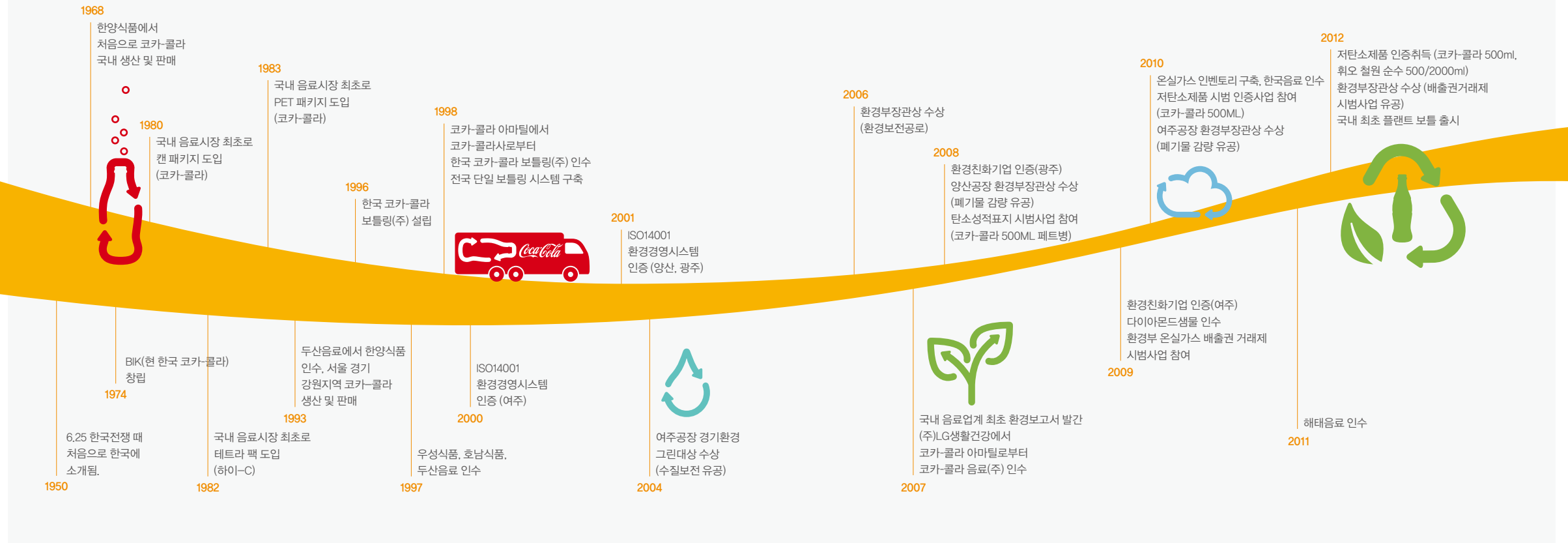
sparkling



still



History



we are
acting
for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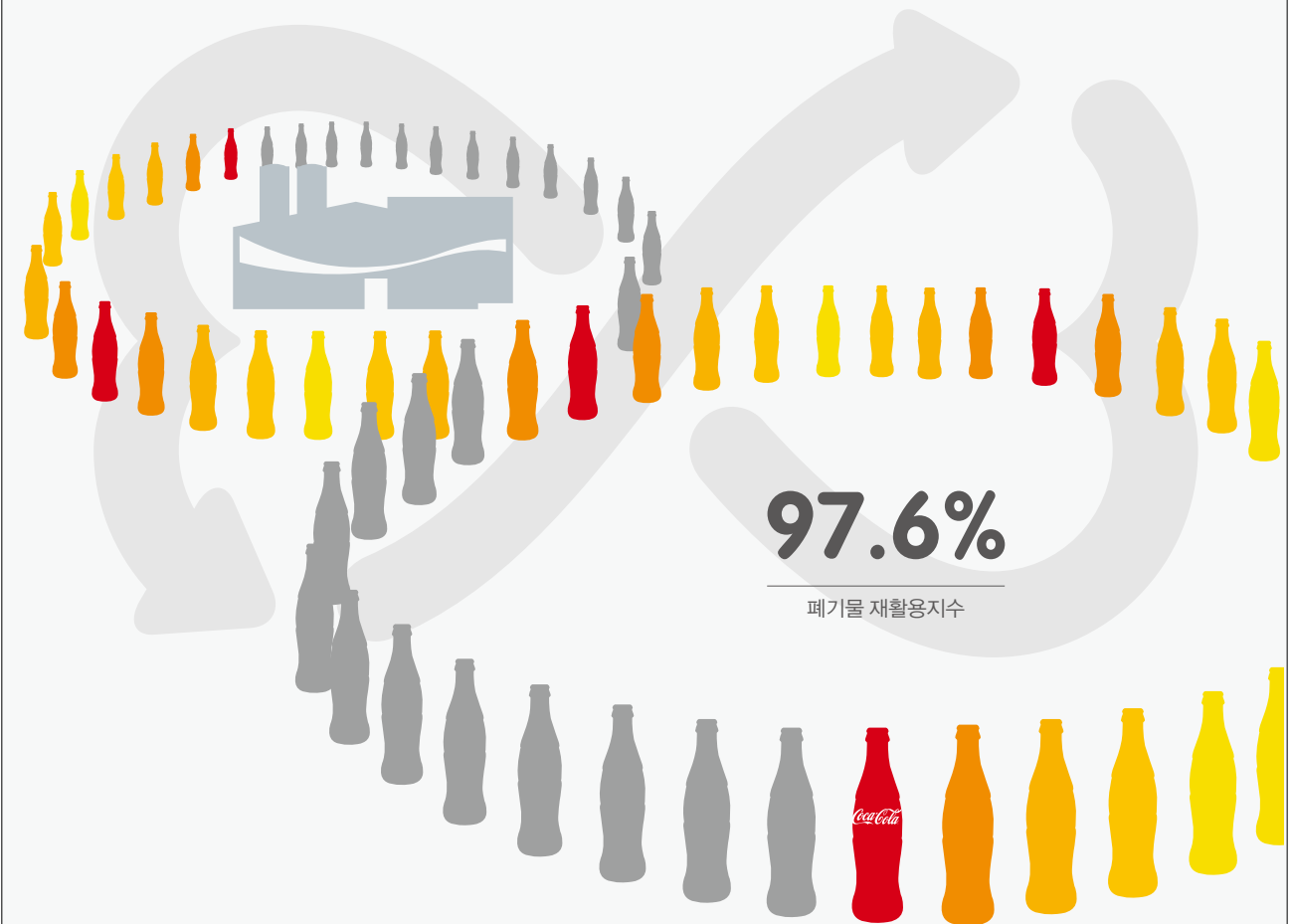


2013년 코카-콜라 음료 7개 생산 공장의

폐기물 재활용지수는

평균 **97.6%**에 달합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답게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입니다.
특히 전 세계 코카-콜라 시스템에 적용되는 EPM 지표를 기반으로
매년 각 공장의 환경성과를 비교·분석, 성과 향상을 모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자체적인 환경안전보건방침을 마련,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코카-콜라 환경안전보건방침

코카-콜라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답게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환경안전보건방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안전보건방침 상세 내용

- 
1 환경 법규 및 규정 준수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이행함으로써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
- 
2 환경 목표 수립 및 진단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 
3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4 임직원 환경 교육 실시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환경·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고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5 지역 환경보호활동 지원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6 투명한 환경경영 시스템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서화와 주기적 검토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안전·보건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 
7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사내 외 협력회사와 환경·안전·보건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경영향·위험성 평가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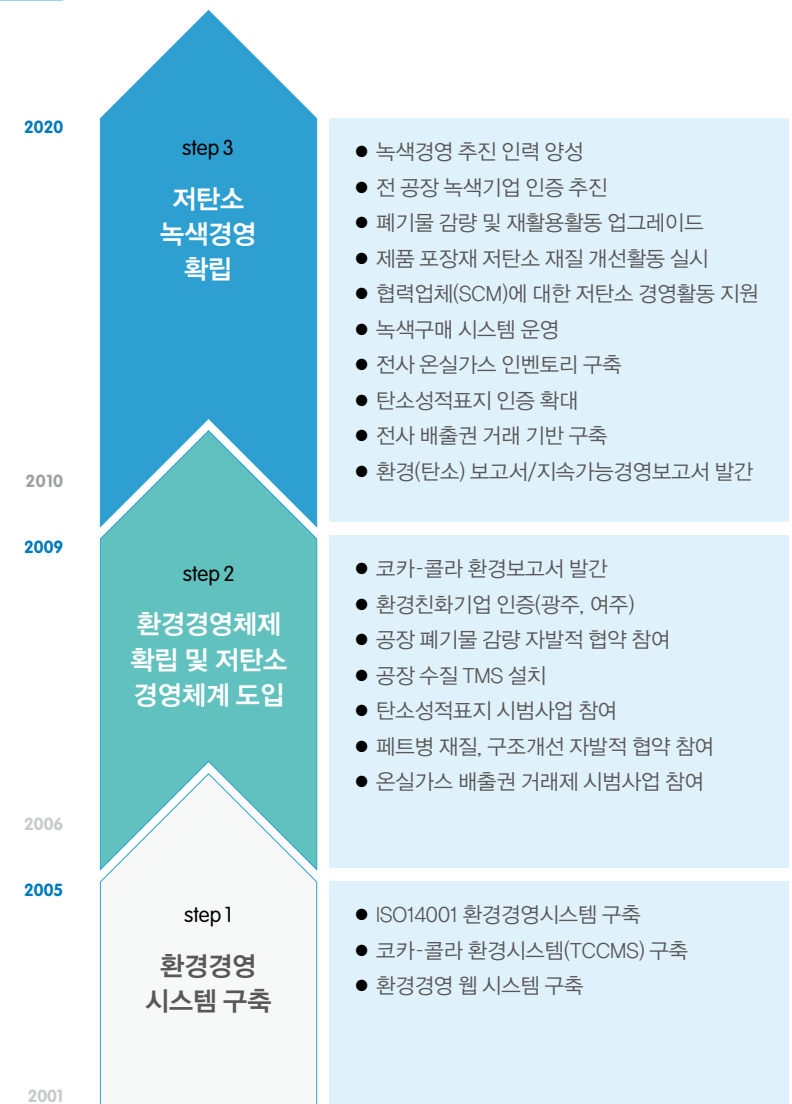
“코카-콜라는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경영으로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Green Management Goals

녹색경영 목표

코카-콜라는 국내 환경 기준과 더불어 코카-콜라 자체 환경 기준KORE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녹색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전 세계적 환경 이슈인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성적표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체계 구축 3단계





“코카-콜라는 8개 전 생산공장에 ISO14001을 구축,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

코카-콜라는 환경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2000년부터 8개 전 생산공장에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사의 자체 품질·환경·안전·보건 시스템인 KORE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녹색기업 인증을 공장에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는 물론 국내 환경 동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여주 공장이 광주공장에 이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정부와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폐기물 감량 자발적 협약, 페트병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 최근 기업에 요구되는 환경적 이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자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사내 직원들과의 환경 이슈 공유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협약 현황

	여주	양산	광주	전안	평창	철원	남원	의왕
ISO14001	●	●	●	●	●	●	●	●
OHSAS 18001	●	●	●	●	●	●	●	●
KORE (환경경영인증)	●	●	●	●	●	●	●	●
녹색기업	●		●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	●						
온실가스 감축 협약				●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 공동협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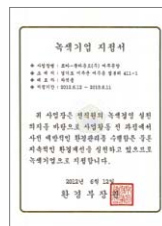
또한 당사는 협력업체들의 녹색경영 및 환경관리 지원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공장은 2013년 5월,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녹색경영 기술전수 및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협약서



ISO14001 인증서



녹색기업지정서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서



온실가스 감축 협약서



“코카-콜라는 위기상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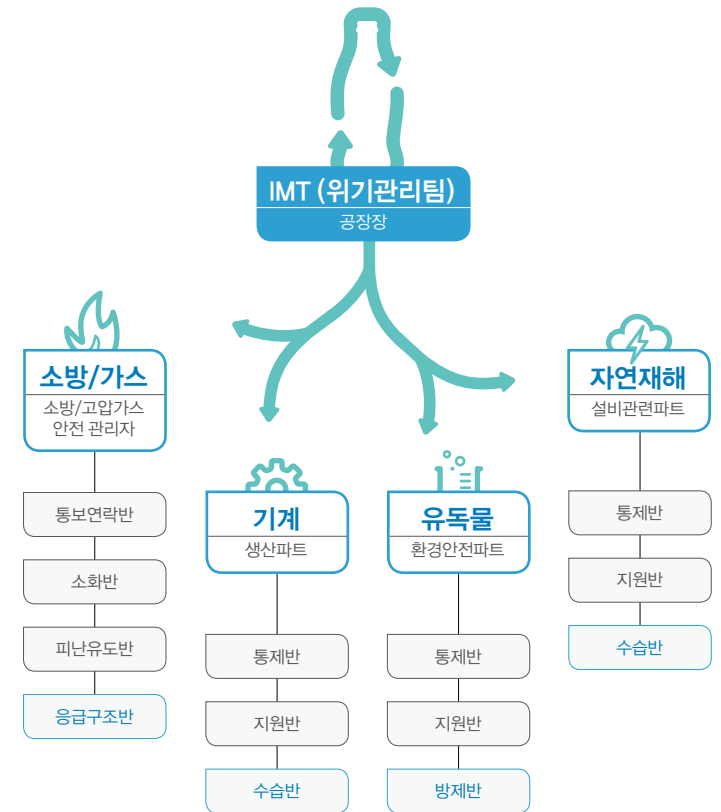
Environment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환경사고 대응체계

코카-콜라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 Incid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시스템은 코카-콜라의 소중한 자산인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의 손실을 위험 및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당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 공장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개괄적인 위기관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경미한 수준', '중간 수준', '중대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공장 위기관리 시스템

위기관리팀은 위기 상황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서 해당 공장의 공장장을 위원장(팀장)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코카-콜라는 매년 철저한 환경·안전·보건 심사를 실시, 자체 환경시스템 및 환경법규 준수를 실천합니다”

Environment Management Audit

환경경영 심사

코카-콜라는 외부 전문가의 감사와 함께 경력과 자격을 갖춘 내부 환경인원을 활용한 자체 ESH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코카-콜라 ESH 시스템 규격과 국내환경법규 준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검 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ISO14001 외부심사 결과

심사기관 : LRQA (철원공장은 SGS)

법인	공장	일시	긍정적 측면	개선활동
코카-콜라 음료	여주	2013.4.10-11	용수·전기·LNG 사용지수, 폐기물 발생지수, 폐기물 재활용률 등 환경 목표 및 파트별 추진방안 수립과 추진 실적에 대한 월간 단위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외부에서 시행하던 지게차 정비작업에서 발생하는 오일 등의 오염물질 유출방지를 위해 지게차 정비고 확장
	양산	2013.5.22-23	세척용으로 쓰인 가성소다를 재활용하기 위한 탱크 설비를 갖추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저감	유독물창고 유출 방지 트렌치 설치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광주	2013.4.18-19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히 이행	-
해태 음료	천안	2013.10.23-24	유독물 방제 상황을 가상하여 비상사태 훈련을 적절히 실시함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환경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자료를 전달
	평창	2013.12.9	-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든 화학물질이 유출방지시설 내부에 보관될 수 있도록 교육
	철원	2013.11.12	안전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설비 개선 및 직원들의 의식향상	투자시 설비에 대한 환경안전 체크 리스트 개발
한국 코카-콜라	의왕	2013.5.29-30	분말제품 PE Bag 규격 조정, 신제품 원료 폐기 최소화, 원제파트 최적화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효율적인 법규 관리를 위하여 법규명,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최신 개정일자가 식별된 Master List 작성

2013년 KORE 환경심사 결과

심사기관 : Global Audit Organization(LRQA 대행)

구분	일시	개선활동
철원	2013.9월	PET 공병제조 블로어 설비 운영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코카-콜라는 전 세계 모든 공장에 동일한 환경성과지표를 도입,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

환경성과 평가

코카-콜라의 환경성과는 전 세계 코카-콜라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 EPM 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지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코카-콜라는 현재 국내 공장 과 국외 공장의 성과를 비교 검토한 후 그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EPM지표는 코카-콜라가 제품의 다양화 및 생산력 강화를 위해 인수한 해태음료 등의 생산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각 공장의 환경성과를 비교·분석해 성과 향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코카-콜라 음료와 해태음료 공장을 대상으로 산출한 환경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성과지표

2013년

코카-콜라 음료 환경성과지표

구분	단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용수 사용지수	용수·L/제품·L	2.66	3.44	2.66	2.87
폐기물 재활용지수	%	100	99	100	100
폐기물 발생지수	g/제품·L	17.5	20.2	21.7	18.9
수질오염물질 배출지수	g/제품·m ³	26.8	29.4	37.9	29.3
전력 사용지수	kWh/제품·L	0.05	0.06	0.06	0.06

해태음료 환경성과지표

구분	단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용수 사용지수	용수·L/제품·L	2.93	1.12	1.23	1.79
폐기물 재활용지수	%	97	0	88	95
폐기물 발생지수	g/제품·L	14.1	0.21	1.01	5.37
수질오염물질 배출지수	g/제품·m ³	15.0	0.39	0.92	14.35
전력 사용지수	kWh/제품·L	0.08	0.02	0.04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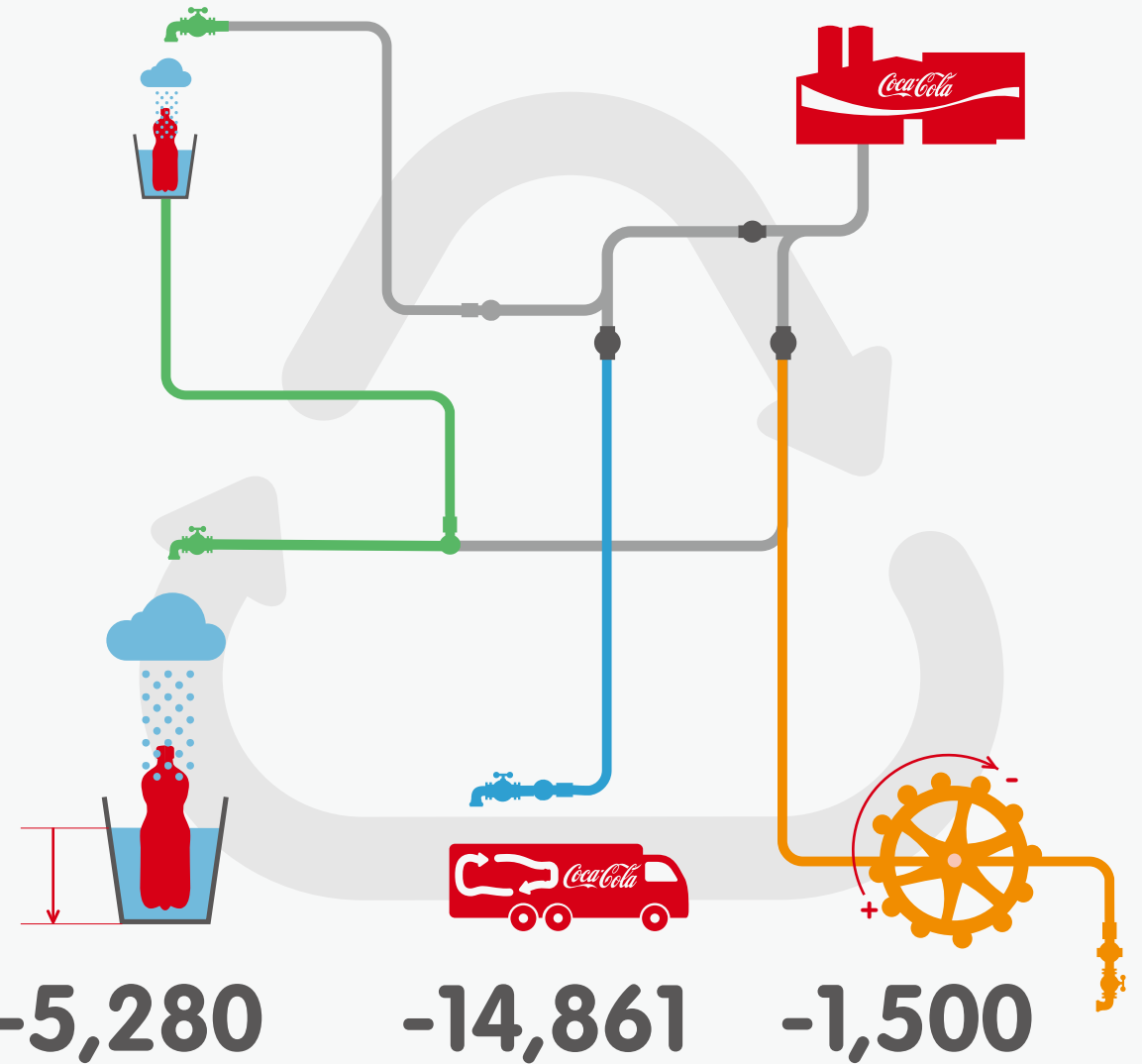
이 밖에도 한국음료 남원공장의 경우, 용수 사용지수는 5.26에서 4.84로 전년 대비 0.42, 폐기물 발생지수는 11.93에서 10.50으로 1.43이 감소하는 등 전년보다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지수 역시 43%에서 49%로 6% 상승한 결과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음료 원액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의왕공장의 폐기물 재활용지수 또한 98%로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we want to
live
a sustainable life



적극적인 용수 재활용-재사용으로 물 절약을 생활화합니다.

코카-콜라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양의 물을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물 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물 절약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용수의 재활용·재사용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철원공장, PET 세척수 재활용으로
연간 5,280톤의 용수 절감

천안공장, 공정용수
회수 후 재사용으로
연간 14,861톤의 용수 절감

광주공장, RGB세병기
스팀 밸브 수동 제어 변경으로
연간 1,500톤의 용수 절감



“코카-콜라는 제조공정에서 소중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용수 재사용·재활용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Water Stewardship

철저한 용수 점검 및 관리 시스템

코카-콜라는 소중한 물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부문 내 각 부서 전문가들로 물 절약 TF팀을 조직, 제품 제조과정에서 낭비되는 물 사용처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미 사용된 물이라 하더라도 공정 중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공장에서는 그간 커피 레토르트 냉각 공정 시 공정용수를 20톤/회 사용 후 폐수처리장으로 배출하였으나, 레토르트 재활용수의 온도조건 및 적정용량을 고려해 열교환기를 신규로 교체, 공정용수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공장은 RGB 세병기 스팀 밸브를 수동 제어로 변경함으로써 연간 1,500톤의 용수를, 천안 공장은 공정용수를 회수해 재사용함으로써 연간 14,861톤의 용수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원공장은 2공장의 PET 세척수 재활용으로 연간 5,280톤의 물을 절감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용수 사용지수 (단위: ℓ / FBL)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11	2.57	3.58	2.59	2.83
2012	2.63	3.45	2.73	2.86
2013	2.66	3.44	2.66	2.87

해태음료 용수 사용지수 (단위: ℓ / FBL)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2011	3.51	1.12	1.20	1.90
2012	2.93	1.12	1.18	1.99
2013	2.93	1.12	1.23	1.79

코카-콜라 음료 용수 사용량 (단위: m³)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11	979,486	589,675	300,722	1,869,883
2012	1,037,626	631,072	325,155	1,993,853
2013	1,075,076	651,958	321,101	2,048,135

해태음료 용수 사용량 (단위: m³)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2011	367,498	127,804	39,764	535,066
2012	366,005	134,794	97,012	597,811
2013	377,028	162,210	106,245	645,483

철원2공장 PET 세척수 재활용(연간)

5,280톤
절감 ⬇️



“코카-콜라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 수질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Water Pollutant Management

엄격한 수질오염물질 관리 시스템

코카-콜라는 법적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전 생산계획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개선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는 각 공장 환경안전파트 주관으로 폐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폐수처리효율을 높여 나가는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여주공장과 광주공장은 각각 폐수처리장 폭기조의 산기판과 비닐하우스를 교체, 폐수 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양산공장은 노후된 원폐수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 오염물질의 하천 및 토양 유출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평창공장은 최종 방류수 수질 분석 및 관리를 강화했으며, 남원공장은 폐수처리장 소모품 교체 및 시설 보완, 침전지 고무판 교체 등을 통해 처리수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폐수 발생량 (단위: 톤/년)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11	546,373	301,850	216,139	1,064,362
2012	588,988	259,016	205,359	1,053,363
2013	621,936	296,615	202,463	1,121,014

해태음료 폐수 발생량 (단위: 톤/년)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2011	229,382	860	6,181	230,423
2012	207,909	2,150	14,717	224,776
2013	199,726	6,037	19,695	255,458

코카-콜라 음료 방류수 평균 수질 (단위: mg/ℓ)

구분	여주		양산		광주	
	법적 기준	평균 수질	법적 기준	평균 수질	법적 기준	평균 수질
BOD ₅	30	5.0	40	6.4	120	5.8
CODmn	40	12.4	50	12.4	130	16.7
SS	30	1.7	40	4.9	120	10.9

해태음료 방류수 평균 수질 (단위: mg/ℓ)

구분	천안		평창		철원	
	법적 기준	평균 수질	법적 기준	평균 수질	법적 기준	평균 수질
BOD ₅	120	2.9	40	3.1	40	1.3
CODmn	130	6.7	50	6.1	50	2.7
SS	120	2.8	40	2.0	40	2.2



“코카-콜라는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을 현저히 절감하였습니다”

Hazardous Chemical Management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

코카-콜라는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위기관리절차 구축, 비상사태 대비훈련 실시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감축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공장에서는 지정된 장소에만 유독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저장 및 보관 시설에는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설비 중 노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수시로 교체 및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공장에서는 유독물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폐수처리장 배수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양산공장은 유독물 보관장 개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공장 역시 폐수처리장 황산탱크를 교체하고 유독물 누출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공장은 다양한 개선 활동을 통해 월평균 5톤의 가성소다 사용량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평창공장에 화학물질보관소를 신규 설치하고, 남원공장과 의왕공장의 약품시설 및 보관조건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여주공장 (단위: 톤)

구분	가성소다	황산	질산	염산	과산화수소	총계
2011	329.8	8.0	4.6	1.5	-	344
2012	253.5	0.0	5.2	1.6	-	260
2013	214.5	0.0	3.4	2.3	1.3	222

양산공장 (단위: 톤)

구분	가성소다	황산	질산	총계
2011	275.1	7.6	6.5	289
2012	234.6	0.2	5.8	241
2013	245.9	0.1	7.4	253

광주공장 (단위: 톤)

구분	가성소다	황산	질산	총계
2011	118.1	32.7	-	151
2012	97.6	38.6	-	136
2013	92.1	26.0	-	118

천안공장 (단위: 톤)

구분	가성소다	황산	질산	염산	총계
2011	336.6	0.0	3.2	0.4	340
2012	221.1	1.9	3.6	0.0	227
2013	179.4	1.0	3.8	0.0	184

유해화학물질 용도

- 가성소다
세척용, 폐수pH조정
- 황산
폐수pH조정
- 질산, 염산, 과산화수소
세척용



“코카-콜라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체계적·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Waste Management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

당사는 폐기물관리 작업표준지침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장별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분리배출 확대를 유도하고 신규 환경시설 도입 및 관리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산공장은 PET 파쇄기 부분 보수 공사를 진행, PET처리 효율을 제고하였으며, 광주공장은 폐수처리장 탈수기 여과포를 교체, 함수율을 88%에서 86%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천안공장은 선물용 재포장제품의 입상수를 변경해 포장지를 절감했으며, 의왕공장 역시 철저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로 매립용 쓰레기를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0.3% 제고하였습니다.

재활용분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비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 용기 회수 실적 (단위: %)



코카-콜라 음료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단위: 별도 표시)

구분	연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	2011	6,198	3,735	2,484	12,417
	2012	6,576	3,587	2,330	12,493
	2013	7,060	3,831	2,618	13,509
폐기물 재활용률 (단위: %)	2011	76	96	98	90
	2012	63	98	100	80
	2013	100	99	100	100
슬러지 발생량 (단위: 톤)	2011	3,058	1,404	984	5,446
	2012	3,236	1,161	992	5,388
	2013	3,676	1,578	1,004	6,258

해태음료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단위: 별도 표시)

구분	연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	2011	2,544	30	47	2,622
	2012	1,623	30	76	1,730
	2013	1,814	30	87	1,931
폐기물 재활용률 (단위: %)	2011	93	0	35	91
	2012	90	0	86	88
	2013	97	0	88	95
슬러지 발생량 (단위: 톤)	2011	91	0	0	91
	2012	126	0	0	126
	2013	188	0	0	188

당사는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 제품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용기순환협회에 가입, 비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회수율 증진 및 제도 발전을 위한 협조 체제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당사 대전물류는 비용기 선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사)한국용기순환협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전물류 (사)한국용기순환협회장상 수상



“코카-콜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

온실가스 관리체계

코카-콜라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2월 환경부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MOU를 체결,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할당 받은 후 배출허용 총량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초과분 또는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선 참여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즉,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필수입니다.

당사는 코카-콜라 음료뿐 아니라 해태음료 3개 공장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확대, 보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직접·간접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조직경계를 설정하였으며,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을 선택해 배출량을 산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2005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배출량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코카-콜라 음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범위

구분	조직경계	기간경계
공장(3개)	여주, 양산, 광주	2005년부터
정비센터(1개)	군포	매년 구축
영업물류(25개)	안양, 하남, 인천, 일산, 남양주, 춘천, 수원, 강릉, 충주, 사상, 울산, 마산, 진주, 통영,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목포, 순천, 제주, 전북, 대전, 천안, 서산	

해태음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범위

구분	조직경계	기간경계
공장(3개)	천안, 평창, 철원	2012년부터 매년 구축

당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라인, WRI/WBSCD의 GHG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ISO14064-1에 의거하여 구축되었으며, 산정범위는 크게 직접 배출Scope1과 간접 배출Scope2, 3로 구분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범위(Scope)

구분	조직경계	당사 해당사항
직접 배출	Scope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고정연소, 이동연소
간접 배출	Scope 2 -기업의 활동 결과로 발생하였지만 다른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기업이 구입하는 전력/스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배출	전력구매
	Scope 3 임직원의 업무 출장/통근 등 기타 모든 간접 배출	없음



배출권거래제 환경부장관상 수상



배출권거래제 환경부장관상 수상식 현장



“코카-콜라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입니다”

Greenhouse Gas Emission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코카-콜라 음료의 2013년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은 47,004톤으로 전년 대비 1,585톤이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지속적인 설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또한 전년 대비 0.004 tCO₂e/제품 톤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도 꾸준히 낮추어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톤 CO₂/제품 톤)

구분		2011	2012	2013	3년 평균 배출량	비율
총배출량		46,782	48,589	47,004	47,458	100%
Scope 1	고정연소	14,874	15,957	15,226	15,352	32%
	이동연소	12,216	11,486	11,290	11,664	25%
Scope 2	전력구매	19,692	21,146	20,489	20,442	43%
원단위 (톤 CO ₂ /제품 · ml)		0.071	0.07	0.066		

2013 코카-콜라 음료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및 원단위

(사용량 단위: TJ/제품 톤, 원단위: MJ/제품 · l)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영업물류	총계
사용량	398.8	176.0	110.1	202.1	887.0
원단위	0.988	1.478	0.580	-	1.245

2013 해태음료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및 원단위

(사용량 단위: TJ/제품 톤, 원단위: MJ/제품 · l)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영업물류	총계
사용량	225.72	28.46	30.31	-	284.50
원단위	1.756	0.196	0.352	-	0.791

2011~2013년까지 코카-콜라 음료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47,458톤으로, 배출원별 배출비중은 직접배출Scope1이 57%, 간접배출Scope2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배출의 경우 고정연소가 32%, 이동연소가 25%, 간접 배출은 전력구매가 43%를 차지했습니다. 당사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배출시설
직접배출	고정연소: 보일러 및 취사설비(LNG, LPG), 난방기(등유) 이동연소: 승용차량(휘발유, LPG), 화물차량(경유), 지게차(LPG, 경유), 특수차량(경유)
간접배출	전력구매: 공장(생산라인, 폐수처리장), 영업물류 사무실 및 조명시설

당사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3차 검증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국제규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온실가스관리 IT 시스템



“코카-콜라는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1,586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였습니다”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량

당사의 공장 및 영업물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유형은 고정연소, 이동연소, 전력구매로 구분하였습니다. 고정연소의 경우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LNG 보일러 및 난방용 등유설비가 주요설비입니다. 공정 중 CO₂ 사용량은 탄산음료 제조과정에서 제품에 주입되지 못하고 탈루되는 CO₂를 모두 포함한 양입니다.

영업물류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유형 또한 고정연소, 이동연소, 전력구매로 구분하였습니다. 고정연소는 영업소에서 사용한 난방설비가 주요설비이며, 이동연소는 영업용 휘발유 · 경유 차량 및 LPG를 사용하는 지게차가 주요설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영업물류	총계
총배출량	19,897	8,749	5,466	12,892	47,004
고정연소	9,556	3,341	1,842	487	15,226
이동연소	642	254	195	10,199	11,290
전력구매	9,700	5,154	3,429	2,206	20,489
공정 중 CO ₂ 사용량	3,420	2,392	1,379	-	7,190

공정 중 CO₂ 사용량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침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음.

항목	천안	평창	철원	총계
총배출량	9,813	1,398	1,481	12,693
고정연소	4,958	7	2	4,967
이동연소	259	75	28	363
전력구매	4,596	1,317	1,451	7,364
원단위(톤CO ₂ /제품 톤)	0.076	0.010	0.017	0.035



코카-콜라음료(주)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서



해태음료(주)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서



“코카-콜라는 탄소성적표지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탄소성적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Carbon Footprint Label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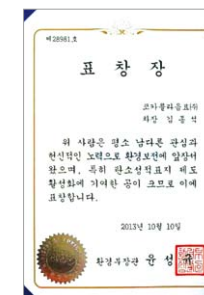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탄소성적인증 제품 현황

당사는 2008년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에 참여,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음료제품에 대한 탄소성적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탄소성적표지는 기업이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자발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제품에 표기,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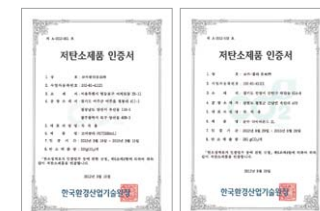
당사의 코카-콜라 500ml PET는, 음료업계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휘오 철원 순수 2,000ml와 500ml 역시 국내 생수제품으로는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 코카-콜라의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제4회 아시아 탄소발자국 세미나 참가



탄소성적표지 제도 활성화 유공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저탄소제품 인증서 (코카콜라 500ml / 휘오 철원 순수 2L)

특히 생수제품의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은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탄소배출량의 경우 100ml 당 23gCO₂ 이하, 혹은 탄소성적표지 1단계 인증 시 탄소배출량 대비 4.24%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휘오 철원 순수의 탄소성적은 각각 92gCO₂/개500ml, 281gCO₂/개2,000ml으로, 100ml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8.4gCO₂와 14gCO₂입니다. 또한 휘오 철원 순수는 기존 먹는 샘물 ‘순수 100’을 리뉴얼한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13.5g 페트병500ml 기준을 사용, 기존 제품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22%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마신 후 쉽게 구기거나 비틀 수 있어,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발전과 소비자 홍보를 위해 환경부와 카카오톡이 함께하는 Eco Stamp 캠페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아시아 탄소발자국 국제 세미나에도 참가,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해 당사의 탄소성적표지 우수 사례를 발표·공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탄산음료 및 생수의 저탄소제품 인증을 도입, 저탄소 녹색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13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저탄소제품을 계속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현황 (단위: gCO₂/개)

제품명	탄소성적	저탄소제품(2단계) 인증취득일	탄소배출량(1단계) 인증취득일
코카-콜라 500ml	225	2012.03.16	2009.03.17
휘오 철원 순수 2,000ml	281	2012.08.29	2010.11.24
휘오 철원 순수 500ml	92	2012.08.29	2010.11.24



“코카-콜라는 2008년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 매년 친환경 제품 구매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reen Purchase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구매 실적

당사는 2010년 6월,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를 통한 녹색생산과 소비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였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는 녹색구매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부터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 녹색구매 실적 파악 및 소비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구매실적 중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리필제품’, ‘재생제품’,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을 녹색구매 활동으로 구분해 당사의 녹색구매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MRO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구매된 항목 중 2013년 약 5.9%가 친환경 제품 구매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녹색구매 구분



코카-콜라 각 사업장 녹색구매 현황

(단위: 천원)

사업장	연도	총 구매액	친환경상품			녹색 구매율(%)
			환경마크	리필/ 고효율제품	소계	
여주	2013	776,134	76,031	1,102	77,132	9.9
	2012	688,382	74,278	1,382	75,659	11.0
	2011	570,899	65,994	2,016	68,011	11.9
양산	2013	381,675	1,378	875	2,253	0.6
	2012	223,455	1,421	718	2,139	1.0
	2011	210,294	1,988	930	2,918	1.4
광주	2013	273,038	5,193	188	5,381	2.0
	2012	240,810	4,470	146	4,616	1.9
	2011	221,994	4,570	93	4,662	2.1
전체	2013	1,430,847	82,602	2,165	84,766	5.9
	2012	1,152,647	80,169	2,246	82,415	7.2
	2011	1,003,187	72,552	3,039	75,591	7.5

※ MRO 전체 구매실적에서 녹색구매 대상품목으로 볼 수 없는 일부 구매품목은 제외함.

- ① 저장품: 정수카트리지 등
- ② 수선유지보수품목: 전동청소차, 기어/펌프/벨트 등
- ③ 간접재료비: 스트레치필름, 희석제, 청관제 등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서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식

special interview

“자원 재활용률 1%를 제고할 경우, 연간 64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적극적인 폐기물 재활용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
윤승준 이사장

“기업이 ‘기후변화완화’와 함께 ‘적응’ 이슈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할 때,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환경은 곧 복지고, 미래고, 생명입니다. 기업 내에 환경이 그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 윤승준 이사장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한정된 생산능력 안에서, 지구 환경은 보호하되 우리 삶의 질은 높여나가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 윤승준 이사장은 이에 대한 해답을 '자원 순환형 사회의 구축'에서 찾았습니다. 최대한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승준 이사장이 구상 중인 자원 순환형 사회의 구체적인 청사진,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업체의 지원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의 체제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금속 캔, 유리병, 발포스티렌, 종이팩, 페트병, 플라스틱 등 별도로 운영되던 개별 공제조합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번 통합으로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EPR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활용제도입니다. 종전까진 생산자들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비자가 책임을 졌지만, 이번에 개편된 EPR에선 사용되고 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회수하는 것까지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2년부터 생산자가 금속캔, 유리병, 전자제품 등 제품 출고량 전체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예치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받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EPR은 이를 보완, 발전시켜 생산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실질적인 재활용 인프라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들었는데, 특히 생산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올해에는 생산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 회수업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데이터를 제시해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특히 재활용분야에만 국한됐던 재활용 지원금 집행이 과연 타당한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회수·선별업체 지원에는 어

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산기업과 재활용업체 모두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 생산기업과 재활용업체, 회수·선별업체, 전문가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해 서로 합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물이 합리적이고 투명할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가능해질 테니까요.

EPR이 도입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희 코카-콜라도 불필요한 것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분담금 10% 감축, 환경에 대한 책임감 제고와 같은 뚜렷한 성과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궁극적으로 자원 감량에 필요한 것은 돈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기업이고요. 때문에 좋은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동반자, 즉 파트너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에서, 기업활동 시 친인권·친환경·노동차별반대·반(反)부패 등의 10대 원칙 준수를 핵심과제로 내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 ISO26000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 역시 생명·노동·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이 같은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지속적인 환경적 공헌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EPR을 비롯한 환경 이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사진 김현민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코카-콜라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효과적인
기후적응기본계획 마련,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이슈는 결국 우리 환경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카-콜라가 탄소성적표지제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자문위원이자,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로서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이 같은 코카-콜라의 노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업과 환경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윤순진 교수의 조언, 지금 공개합니다.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09년 도입된 탄소성적표지제도 등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 입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코카-콜라를 비롯한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환경 전문가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대응 수준을 평가하신다면요? 전공이 환경·에너지 분야인 데다 환경부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례로 탄소성적표지제도만 해도 현재 이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선 같은 제품군 내에서 비교 구매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지요. 이를테면 제가 즐겨 마시는 '휘오 철원 순수'가 저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 이게 코카-콜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걸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야 환경사회학자이다 보니 제품을 고를 때 가능하면 저탄소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겐 무리일 수 있죠.

환경경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규제 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의미에서 환경과 기업 경영은 충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R&D 등 기업 활동에 있어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으니까요. 때문에 관점을 '금지'가 아닌, 보다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한'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물과 에너지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부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업,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업종별로 획일화된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 또한 기업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법안 마련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법이니까요.

코카-콜라는 지난 2007년 음료업계 최초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업 활동의 전 분야에서 '환경'을 중심에 둔 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탄소표지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 시범사업에도 적극 동참한 바 있고요. 이 같은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방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역발상이 중요합니다. 코카-콜라가 그간 추진해온 환경 관련 활동들을 잘 모르는 사람은 "탄산음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CO₂를 줄이는 게 가능해?"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물론 탄산음료 자체에서 CO₂를 줄일 순 없죠. 하지만 생산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CO₂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때문에 티슈 만드는 회사에서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환경보호 활동을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코카-콜라도 CO₂ 감축 활동을 적극 부각시키는 역발상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모든 지자체에 전면 도입될 '기후적응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의 기후 변화 관련 환경영향평가, 취약성평가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곧 가시화될 '기후적응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코카-콜라와 지역사회 모두가 윈-윈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환경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저감 및 CO₂ 배출 감축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입니다. 코카-콜라가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처럼, 기업이 환경단체나 학계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이를 기업의 환경정책에 반영하는 등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계와의 공동 연구 진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 등이 좋은 대안이 되겠죠. 이와 더불어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가능한 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삶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큰차 타는 사람보다 경차 타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질 순 없습니다. 때문에 코카-콜라처럼 영향력 있는 기업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환경보호는 '현재보다 미래'를,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환경이 곧 복지도 생명이니 미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여기에 '환경은 돈이 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훼손하긴 쉬워도 복원하긴 어려운 게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환경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세걸 사무처장이 말하는, 환경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과연 무엇일까요?

환경 분야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유독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생산, 운송,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는 물론 폐기물, 온실가스 등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환경 오염을 일으킨 유발자, 즉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개인·가정·기업·정부가 모두 함께 환경 보호에 뜻을 모으고 의견을 공유하는 공동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 물 보호 활동, 습지 보호 활동, 용기 재활용을 통한 CO₂ 저감 활동 등 환경과 관련한 긍정적인 시도를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기업의 마인드 즉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코카-콜라의 그간의 노력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아직까지 다소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기업이 보다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실행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환경을 중심에 두어야 해요.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면 환경 관련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이 곧 복지다'라는 생각으로 일관성 있게 환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복지가 별게 아니에요. 공짜로 혜택보는 건 다 복지거든요. 금전적인 것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가능한 것, 힘들 때 기대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환경이고 자연 아닙니까? 하지만 환경은 훼손하긴 쉬워도 복원하긴 힘든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나무 한 그루 베어내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지만,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때문에 환경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이를 가능케하는 제도의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머리론 '환경이 생명이니 미래'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이를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생활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환경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을 사먹고, 국립공원 관람료를 내고, 쓰레기 봉투를 사는 것, 이 모두가 우리 주변 환경이 오염됐다는 증거입니다. 환경 오염은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예전엔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었던 땅 따먹기, 비석치기 같은 놀이들을, 이전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이는 우리의 삶이 자연과 그만큼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은 현재가 아닌 미래, 나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특히 물은 환경오염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총총하게 연결된 먹이연쇄사슬을 거쳐 결국 우리에게 그 파급효과가 미치기 때문이죠. 이처럼 환경이 나와 우리 삶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환경운동이 생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환경 NGO단체의 일원으로서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코카-콜라가 환경경영에 관한 확실한 선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코카-콜라를 배우고 참고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멘토로 삼을 수 있도록요. 이를 위해선 도심 속 숲 조성, 사막화 방지 운동 같은 구체적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Earth Hour'나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 같은 코카-콜라만의 고유한 활동을 전개 중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초미세먼지와 황사, 스모그로 몸살을 앓는 도심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나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 환경 때문에 빚어지는 물 순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가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깃대종'이라 불리는 도시지표종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멸종 위기에 놓인 깃대종이 살아난다는 건 환경이 복원됐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환경이 곧
미래라는 인식이
기업 내부에 뿌리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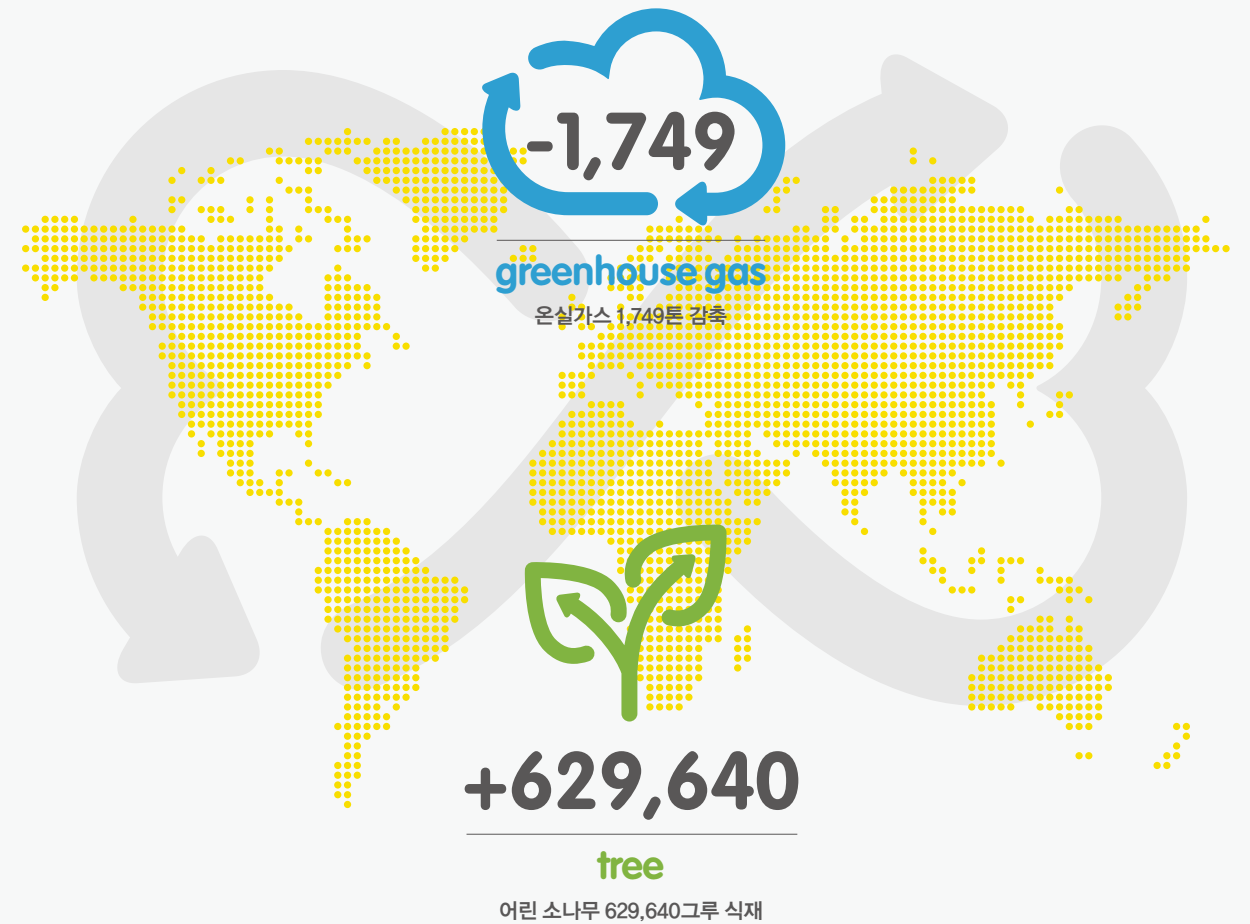


we
share
love
for the earth



“지구야 사랑해, 지구야 고마워”

코카-콜라는 2007년부터 8년째 'Earth Hour(지구촌 전등 끄기)'를,
2011년부터 4년째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arth Hour 캠페인의 효과
(수치는 2012년 기준)



“코카-콜라의 ‘Earth Hour’ 캠페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전파합니다”

Earth Hour

1년에 하루, 지구를 위한 1시간

—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Earth Hour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코카-콜라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없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도 없다는 경영이념 하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8년째 참여 중인 ‘Earth Hour(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관하는 ‘Earth Hour’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기후 변화 캠페인으로, 일반시민, 기업, 지역사회, 단체가 1년에 하루, 1시간 동안 가정 및 건물 등을 자발적으로 소등하는 행사입니다.

코카-콜라는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 2007년 1회 때부터 참여해왔으며, 지난 3월 29일에도 국내 주요 코카-콜라 사업장과 임직원들이 1시간 동안 전등을 끈 채 기후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전등 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코카-콜라 기업 트위터twitter.com/CocaCola_Korea를 통해 휴대폰 배경화면 바꾸기, 일정 등록하기, 퀴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3월 29일 당일에는 팔로워들의 지구촌 전등 끄기 인증 참여율에 따라 무대 위 조명이 꺼지면서 코카-콜라 제품에 쓰여 있는 ‘지구야 고마워’ 메시지가 점차 공개되는 모습을 공유, 참여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외에도 ‘코-크 프렌즈’로 활동 중인 파워블로거 20여명이 각각 자신의 블로그에서 사전 이벤트를 함께 펼치는 등 지구촌 전등 끄기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코카-콜라 Earth Hour 캠페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어린이 빗물 재활용 체험 — 코카-콜라 그린 리더 빗물학교

코카-콜라는 인류의 소중한 자원인 물 보호를 위해 음료 생산에 사용된 만큼의 동일한 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물 중립(Water Neutrality)’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일환으로 물의 재활용, 지역 사회 물 보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코카-콜라가 환경재단과 함께 새롭게 선보인 ‘코카-콜라 그린 리더 빗물학교’는, 이 같은 활동의 연장선 상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내 2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직접

빗물을 모으고 조경·소방·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빗물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최근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갈수록 줄어들어 따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 보전 실천 방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코카-콜라 그린 리더 빗물학교’는, 현재 상탄초등학교, 금육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총 3개교가 참여 중이며,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23만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환경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Coca-Cola Youth Green Leadership

생명존중 · 자연보존 의식을 일깨우는 ‘참 좋은’ 생태 체험

—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

2011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은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습지 및 생태 현장체험활동입니다. 어린이들이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고, 물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 및 자연 보존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은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습지 보존 노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미래의 환경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국내외 습지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매년 연중 4회 진행되며, 2013년에는 1차 서천갯벌을 시작으로 두옹습지, 증도갯벌, 무안갯벌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차부터 4차까지 참가한 학생 160명이 제출한 환경보호 관련 에세이, 현장 참여도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발된 8명의 최우수 그린 리더에게는 램사르 습지 탐방을 할 수 있는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일본을 방문, 램사르협약에 등록된 비와코 습지 탐사와 황새복원마을 견학 등 우수한 자연보전지역 탐사 및 한일교류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환경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

2014년에는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습지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운곡습지를 시작으로 서울밤섬, 우포늪, 강화갯벌 등 총 4곳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8명의 최우수 그린 리더에게 ‘싱가포르 순게이블로 습지’를 직접 탐사할 수 있는 환경 연수 특전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더의 빗물을 모아 재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를 담당할 학생들에게 빗물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질 측정 등 다양한 수자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2014년에도 코카-콜라는 기존 3개 학교에 새로운 3개 학교를 추가 모집,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재단과 함께 ‘물’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기 위한 환경 체험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습지 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수자원 교육 체험 프로그램 ‘빗물학교’는, 어린이들이 그린 리더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코카-콜라는 8개 생산공장 주변의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Environment Improvement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하천 환경정화활동



제주공장 점봉천 정화활동



양산공장 양산천 정화활동



광주공장 친수공원 정화활동



천안공장 천안천 정화활동



평창공장 직동천 정화활동



철원공장 남대천 정화활동



남원공장 울촌천 정화활동

코카-콜라 제주공장은 공장 주변에 위치한 점봉천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공장 임직원들은 2013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점봉천 주변에 버려진 페비닐, 담배꽂초, 페스티로폼, 휴지 등을 수거하며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 신록사 주변, 황학산 등산로 주변 일대에서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산공장은 양산천 일대 정화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산천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상시 체계를 구축,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공장은 산동교 주변 일대에서, 천안공장은 공장 인근의 천안천에서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거량 단위: kg)

구분	연도	횟수	인원	수거량	장소
제주	2011	2	57	500	점봉천
	2012	3	43	380	점봉천
	2013	3	61	300	점봉천
	계	8	161	1,180	
양산	2011	9	75	1,390	양산천
	2012	12	75	980	양산천
	2013	15	89	1,500	양산천
	계	36	239	3,870	
광주	2011	1	30	200	산동교 주변
	2012	2	62	300	산동교 주변
	2013	2	52	500	산동교 주변
	계	5	144	1,000	
천안	2011	2	20	900	천안천
	2012	4	30	1,800	천안천
	2013	4	46	1,400	천안천
	계	10	96	4,100	
평창	2011	1	13	260	진조리 직동
	2012	1	10	300	진조리 직동
	2013	2	25	540	진조리 직동
	계	4	48	1,100	
철원	2011				
	2012	1	9	100	사곡천
	2013	1	17	50	공장 주변
	계	2	26	150	
남원	2011	1	14	150	울촌천
	2012	1	13	170	울촌천
	2013	1	16	200	울촌천
	계	3	43	520	
의왕	2011	1	18	60	안양천 지류
	2012	1	22	75	안양천 지류
	2013	1	20	63	안양천 지류
	계	3	60	198	

용어사전

Glossary

고정배출원

보일러, 로, 버너, 터빈, 히터, 소각로, 엔진, Flare 같은 고정장비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로 열, 증기, 전력 등의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원을 의미합니다.

공정배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의미합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Beverage Container Deposit System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용기 사용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빈용기의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동배출

공장 내에서의 이동 및 상품·원료 운반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트럭, 버스, 기차, 비행기, 보트, 선박, 바지선, 항공기 등과 같은 수송 장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생산품의 출하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저탄소제품인증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이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해 이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한국 코카-콜라(유)와 코카-콜라 음료(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CCKC Coca-Cola Korea Company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의 약자입니다.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프로모션을 담당합니다.

CCB Coca-Cola Beverage Company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의 약자입니다. 국내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유통 및 고객지원 활동을 담당합니다.

FBL Finally filled Beverage Liter

최종 생산된 음료제품을 부피(리터)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코카-콜라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Utility(물, 전기, 연료 등)의 효율적인 사용을 원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용수사용량(L/FBL)은 총 생산된 음료제품 1리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의 양을 의미하며, 전력사용량(kWh/FBL)은 제품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몇 kWh를 사용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GAO Global Audit Organization

TCCC 내부조직으로 전 세계 코카-콜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조직.

KORE

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

코카-콜라 고유의 품질 시스템, 환경, 제품의 품질, 안전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관리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는 국제규격인 ISO9001, ISO14001, OHSAS18001 등의 국제기준 요구사항에도 부합합니다.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모성 자재를 의미합니다. 기업 소모성자재 또는 기업 운용자재라고도 합니다. 필기구부터 복사용지·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이 대표적이며, 청소용품과 각종 설비, 장비를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RGB Returnable Glass Bottle

1회용 유리병이 아니라 회수하여 깨끗이 세척해 재사용하는 유리병을 말합니다.

TCCC The Coca-Cola Company

원액과 시럽을 생산, 판매하는 코카-콜라의 약자입니다. 생산된 원액과 시럽은 코카-콜라의 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전 세계의 보틀러에게 공급됩니다.

Coca-Cola

한국 코카콜라(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0층
코카콜라 음료(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